
 인천광역시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배포일자	2023년 2월 9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과	담 당 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박서현 ☎440-3241 • 담당자 신소정 ☎440-324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위해 10만 달러 구호금 지원

- 유정복 시장, “양국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 바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튀르키예의 피해구호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돼 지진피해 복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는 1949년 8월 13일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1950년 7월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한국전 당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큰 규모(2만1,212명)로 파병했고, 희생자(966명)도 미군, 영국군 다음으로 많았다.

유정복 시장은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며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우리 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튀르키

예의 안정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구호금 지원과 함께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복구상황 등을 고려해, 시의 여건과 규모가 유사한 튀르키예의 도시를 선정해 자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중국 충칭 지진(10만 달러), 필리핀 마닐라 태풍(5만 달러) 및 알바이주 태풍(5만 달러), 아이티 지진(10만 달러), 중국 충칭 등 코로나 구호용품(3억 5천여만 원) 등 국제사회 재난구호를 위해 구호금과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